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2. 23.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단일화 결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 아쉬워 (2/20)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2022년 2월 20일 <KBS 뉴스 9>

일요일 주말 대선 최대 이슈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었다. 당연히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어쩌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하기에 단일화를 둘러싼 양 후보와 양당 간의 표면 움직임과 물밑의 움직임, 발언배경 등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사태의 진행과정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었다.

단일화 관련 보도는 두 개로 첫머리의 ‘단일화 제안 1주일 만에 안철수 ‘마이 웨이’ 선언’과 ‘[대선 톨아보기] 변수된 단일화 제안 철화·의혹·TV토론’이었다. 하나는 단신성 보도였고, 본격적으로 단일화 결렬 이슈를 다룬 것은 대선 톨아보기 코너였다.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했을 정도면, 실무진급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간 상태였음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역대 선거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상황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파탄에 이르렀다면, 분명 그 기간 동안에만도 상당히 많은 사건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KBS 보도는 안철수 후보가 ‘답 없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라고 하고 윤 후보측은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라고 발언한 데에 안철수 후보 측이 감정이 상했다는 정도만을 언급한 채 분석을 마무리했다. 지극히 기술적인(descriptive)

보도다.

다른 매체는 달랐다. 예컨대 이날 SBS 8뉴스는 단일화 결렬 배경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SBS는 단일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여러 단일화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대선 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3곳,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절반까지 공천을 보장한다, 또 합당을 통해 국민의당 대선 비용도 국민의힘이 떠안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며 오간 얘기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 부분도 KBS는 단지 윤 후보가 전화를 걸었고 안 후보가 단일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리포팅했는데, SBS는 윤 후보가 전화로 안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하자 안 후보는 “후보끼리 만나기보다 실무진 논의가 우선”이라고 답하고, 윤 후보가 “그럼 실무협상을 할 사람을 정하자”고 하니 안 후보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추론할 수 있는 우선 양측 사이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결렬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자 윤 후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실무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던 실무 협상을 윤 후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식으로 말하니 역시 상대가 단일화에 진정성이 없음을 다시금 절감하였을 테고, 냉담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서사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공적 언론이 정치권의 시시콜콜하고 자극적인 가십까지 보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권자로 하여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해프닝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끔 알려진 사실들을 충실히 전해주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보도는 상당히 아쉬웠다.